

순천시, 4국 6과 신설 '조직개편'

'도시 미래성장' 집중 전략기획국·청년교육국 등 신설 7월 시행

순천시가 오는 7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순천시는 자치조직권 확대 흐름에 맞춰 전략기획국 등 4국, 콘텐츠정책과 등 6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우주항공-콘텐츠산업 등 도시 신성장산업 발굴, 글로벌 대학 선정 등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안으로 조직을 꾸린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국 단위 기구 개편으로 ▲기획-예산 총괄

기능과 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기획국' ▲글로벌 대학과 청년정책 연계로 지역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교육국' ▲재난 안전 총괄 기능과 대차보 도시 완성을 위한 '안전교통국' ▲농업행정 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정혁신국'을 신설한다.

또 생태환경센터는 기후에너지과를 편입시켜 '생태환경국'으로 개편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 총괄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복지국'은 복지 분야 전담 기구로 직제를 구성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지도·기술 보급 등 농촌진흥기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생활밀착형 행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 단위 기구 개편은 ▲K-디즈니 순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콘텐츠정책과' ▲복합문화단지과 신성장산업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과' ▲우주항공-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과' ▲어촌 뉴딜과 국가해양정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과'를 신설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후반기 '대한민국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능 중심 개편으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통해 지혜를 공유하고, 북-융합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지역에 산재한 현안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솔로엔딩'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 36~45세 미혼남녀가 만나 행사를 즐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고흥 농어촌 버스, 5개 권역별 운행 체계로

노선개편 용역 중간보고회...노선별 번호 부여도

고흥군이 지난 2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흥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의 문제점, 민원을 분석해 운수사·이용자·고흥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실단체조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 개편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사의 군민 불편사항 분석과 불합리한 노선 조정, 전국 최초 장터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향후 과업 수행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개편안에는 현재 1대의 버스가 하루 동안 고흥군 전역을 운행하던 방식에서 5개의 권역별로 구분해 운행하는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노선별 번호도 부여해 군민은 물론 고흥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도 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데

용역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중간 보고회 이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보완하고, 향후 주민공청회 실시 및 배차시간표 작성 등의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올 9월까지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을 위한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 미혼남녀 '솔로 탈출'

시 주관 '솔로엔딩' 16커플 탄생...2달간 20~40대 만남 주선

광양시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위해 진행한 '솔로엔딩'에서 총 16커플이 탄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A그룹(25~35세) 행사에 이어 지난 18일 B그룹(36~45세) 미혼남녀의 만남을 위한 솔로엔딩을 진행했다.

올해는 연령대를 세분화해 나이가 비슷한 청춘남녀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참가자를 모집했다.

B그룹은 남녀 20쌍(40명) 모집에 남자 34명, 여자 16명 등 총 50명이 참여해 공개추첨을 통해 남자 16명과 여자 16명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남녀 16쌍이 참가한 가운데 이벤트 전문 사회자의 진행과 함께 특강 및 로테이션 대

화, 포토 데이트, 커플 굿즈 만들기, 랜덤 데이트, 매칭카드 교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미혼남녀들에게 만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최종 7커플이 매칭됐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A그룹에서는 9커플이 매칭되면서 올해 미혼남녀 만남행사인 솔로엔딩은 총 16커플을 탄생시켰다.

광양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솔로엔딩'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무료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시, 6세~18세 대상 55억원 투입

여수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21일자로 무료 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여수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무료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55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2021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가 호응을 얻자 무료 이용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0원 버스 이용 건수는 초등학교생 48만 건, 중학교생 428만건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 추진·추가 예산 소요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무료 요금 시행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 증가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적인 추진 상황을 보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착착

12개 읍면 140곳 올해 4년차...꽃길 조성·편의시설 설치 등

보성군은 올해 12개 읍면 1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시책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환경과 경관 개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다. 이 사업은 보성군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인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전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해마다 500만원씩 3년간 총 1500만원이 지원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성군 140개 마을은 ▲소공원, 꽃길 조성, 화초 식

재 ▲마을안길 가꾸기 ▲특색 있는 문패와 편의시설 설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마을별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 발주 등 주민 자율 참여를 이끌고 있다. 지자체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민 회의를 거쳐 마을 기금이나 주민 기부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워 마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성군은 읍면 담당자와 마을 활동가, 주민 교육을 수시로 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전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2021년 대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확포장 착공

142억원 투입 4차로 확장...2026년 12월 마무리

광양시가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5월 말 착공한다.

광양읍 관문인 이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차로 폭

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해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자해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26년 12월

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잔여 매수 등 협의의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불가피해 12월 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옥병 광양시 도로과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인 만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차량 우회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라좌수영 독제' 여수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이순신 장군 수군 출정식 재현...6~10월 월 2회 이순신광장서 공연

여수시가 '전라좌수영 독제'를 시 문화예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여수 대표 공연인 '전라좌수영 독제'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 출정식을 재현했다. 군중 앞에서 세우는 독기에 드리는 제사를 표현했다.

공연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이순신광장에

서 진행된다. 흑서기와 우현 등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1부에서는 시립국악단 창작 '전라좌수영 독제' 공연이 약 80분간 진행된다.

2부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5개 단체의 다양한 마당극 위주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약 40분간 펼쳐진다.

여수시는 이번 공연 상설화를 통해 평소 보기 힘든 전통문화의 고층 재현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방침이다.

서재환 여수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전라좌수영의 분영으로서 역사를 고증한 엄숙한 의식을 재현한다"며 "전라좌수영 독제가 여수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매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선정

10년 연속... '지리산 인문지리지'·'지혜학교' 등 진행

구례군매천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구례군은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등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는다. 매천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하나로 '길에서 쓰는 지리산 인문지리지'를 진행한다.

문수현, 임현수, 신강 등 지역 전문가들의 강연과 탐방이 총 10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 강연에서는 구례 마을 역사와 여순사건, 산촌과 폐사지 등 다양한 지역 특성과 장소성을 연결한다.

'지혜학교' 사업으로는 펼쳐지는 '지리산 정원

을 내 마을에 저장'은 지리산 정원 식물을 매개로 진행한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인생을 객관적, 인문학적으로 해석한다. 이들 수업은 오는 6월12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수업 참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간 신청할 수 있다. 각 강좌당 20명씩 모집한다.

구례군매천도서관은 지난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우수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상을 받았다. 지난해 2021년부터 10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운영기관에 선정돼 '전남 최장기 선정 기관'이 됐다. 오는 9월28일에는 2024년 '구례 책 축제'를 열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